새봄, 봄꽃 향기 더욱 그윽하리니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예하



영축산 아래 장밭들의 보리싹은 찬바람에도 푸르고, 보경호의 맑은 물에는 영축산의 모습이 드리웠도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의 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소식을 준비하도다.

대중이 모여서 도량마다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니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장부가 배출되며 그 서늘한 기상은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풀어 주도다.

自性淸淨心(자성청정심)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니 예토는 정토가 되고, 모두에게 본래 청정하고 구족한 한마음이 현전하니 여래의 지혜 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온갖 재앙은 저절로 소멸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되었도다.

삼동 찬바람에도 새봄을 준비하는 보리싹처럼 곳곳에서 찬란한 새봄을 준비하니 봄꽃 향기는 더욱 그윽하고 꽃잎은 더욱 선명할 것이로다.

激石灘聲如戰鼓(격석탄성여전고)하고
飜天浪色似銀山(번천낭색사은산)이로다.
灘驚浪打風兼雨(탄경랑타풍겸우)나
獨立亭亭意愈閑(독립정정의유한)이로다.

여울의 바위 치는 물소리는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을 뒤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파도는 바람과 비를 함께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은 오히려 한가롭네.

마음 등불 밝혀 원력을 세워라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예하



언제 어느 곳이나 두루한
부처님의 설법을
가슴 깊이 느끼며
바른 진리 기쁘게 받아 지니어
금생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크나큰 원력을 세워야 하리라.

만중생의 행복과 국운의 융창을
일심으로 발원하니 가피가 함께 하여
원만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욕망이 향하는 바는 모두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이니
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자루 촛불이
본래 없던 어둠을 몰아내듯

무명 번뇌 속에 한 조각 착한 마음
그 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마의 궁전을 적멸의 도량으로 빛냅니다.

가야 할 길은 오직 해탈 성불이니
일심 청정 정진하는 가운데
공덕이 함께 하며
만사형통의 서기가 비치리라.

"만다라세상을 구현합시다"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의 크고 붉은 태양은 만다라세상의 중심인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의 활동상인 양, 우리 사는 세상을 장엄하고 밝게 비춥니다.

종단이든 세속이든, 안락하고 진취적인 생활의 원동력은 화합입니다. 섬김은 하심이자 존중하는 자세이며,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소통은 상호존중하는 섬김의 선물이며, 화합은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산물입니다. 섬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두가 꽃이 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섬김은 부조하고 공양하고 예참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여 섬기면 상대가 이해하고 소통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예경의 세상이 열리고, 모순과 대립의 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안락정토로 승화합니다. 새해에는 너와 내가 심인을 품은 여래로서 섬기기에 더욱 정진하고 서원합시다.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모든 가정이 원만하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국제사회가 널리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새해에는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만다라세상의 구현을 서원합시다.

만다라세상은 법열로 넘칩니다.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금강무보살이 되어 섬김의 춤을 춥시다.

다함께 입에 입을 모아 금강가보살이 되어 소통의 노래를 부릅시다.

다함께 마음과 마음을 통해 금강화보살이 되어 화합의 꽃을 피웁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예하



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 과거사는 흘러갔고 미래사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中道)로 가라하신 말씀을 놓지 말고 멀리 관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며 자기를 바로 봅시다. 믿는 것도 나(자신)요, 믿을 대상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입니다.

인적 없는 방에서 듣는 빗방울 소리(虛堂雨滴聲)
작가 선지식도 답하기 어렵구려.(作者難酬對)
알아차린 사람이라면(若謂曾入流)
그저 몰라야 하리라.(依前還不會)
모르는 줄도 모르니(曾不會)
남산 북산 갈수록 세찬 비가 쏟아지네.(南山北山轉滂霈)

"이 순간, 불자 본분을 다하라"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예하



대한민국 국민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태고종도 여러분!

새로운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선포에 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법어를 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져 나라와 민족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중략〉

우리 불자들은 첫째,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둘째,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화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자비심으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상기후와 각종 분쟁 등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수행과 성찰(省察)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불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국도생 창종정신 필요합니다"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한국전쟁을 겪으신 직후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지 않는가. 한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은 굴레에 스스로 갇힌 소아에서 일체중생을 위해 자기 굴레를 넘어선 대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대승의 길이다.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기를 닦아가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현세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이후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구국도생의 대비원으로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자비의 법등을 밝혀 평안과 화합으로 정진하여 국론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하략〉

끝으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종단 원로 종 우　　원 장 덕 민
주 지 종 천　　부주지 정 문
부주지 성 행　　총 무 성 제
교 무 정 수　　재 무 성 심
포 교 성 요　　사 회 성 주
호 법 명 강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